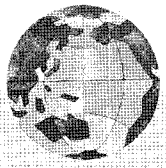


국제표준화 회의동향

제15차 ISO/IEC JTC1 노르웨이 총회

권미희
TTA 표준본부 정보기술표준부장

지난 11월 6일에서 10일까지 노르웨이 트롬소에서 개최된 제15차 ISO/IEC JTC1 총회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회의 개요

정보처리를 포함한 폭넓은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화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도기술 창출을 목표로 이번 제15차 JTC1 총회는 노르웨이 트롬소에서 개최되었으며, 가장 두드러진 국내대표단 활동결과로는 SC6의 의장국 및 간사국으로의 선임을 들 수 있다.

가. 회의명

제15차 ISO/IEC JTC1 총회(Plenary Meeting)

나. 참가 목적

- JTC1의 전반적인 정책결정 및 장기 사업계획에 대하여 우리의 적극적인 입장반영과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표준화위원회 연구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
- JTC1/SC6(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장국 및 간사국 수임 의사표명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힘으로서 국제표준화 활동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제고

※ JTC1/SC6 : Telecommunication &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다.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00. 11. 6 ~11. 10(5일간)
- 장소 : 노르웨이 트롬소 리카 호텔

라. 참가자

- 참가국 및 참가자 : 총 19개국 70여 명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싱가폴
- 참가 기구
  JTC1 sc2/6/7/17/22/25/26/27/29/31/32/36, ITTF, IIT-RG, CAI-RG, ISO/TC46, ECMA, ITU-T
- 한국 대표단 : 총 5 명
  황종선 : 고려대 교수(수석대표)

권미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부장
정광화 : 기술표준원 사무관
박길환 : 기술표준원 사무관
이주란 : 표준협회 선임연구원

2. 회의 내용

가. 회의 안건

- ㅇ JTC1 사업계획 검토
- ㅇ JTC1 분과위원회별(SCs) 활동보고
- ㅇ 특별그룹(Special Group) 활동보고
  - 표준활용성을 위한 사업계획개발 특별그룹
  - 전략기획 특별그룹
  - 스페셜 표준화 및 관련 상호운용성 특별그룹
- ㅇ 라포쳐 및 Ad-Hoc 그룹 활동보고
  - 적합성평가 및 상호운용성 라포쳐 그룹
  - 정보기술구현 라포쳐 그룹
  - 마케팅 라포처 그룹
- ㅇ 분과위원회 신임의장 임명
- ㅇ 외부기관과의 협력관계 정립

나. 회의결과 요약

ㅇ 한국을 ISO/IEC JTC1 SC6 간사국으로 승인 : 미국 표준화기구인 ANSI의 SC6 간사국 포기의사에 따라 한국이 SC6 간사국 수행의지를 표명하여 이번 노르웨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이 되었다. 정보기술의 중요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JTC1 산하 한 분과위원회의 간사국을 맡게 된 것은 한국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 표준화 발전과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몇 개의 SC 간사국을 더 맡아 표준화 활용과 함께 표준화 연구에 큰 진전이 있길 바라며, 많은 표준화 전문가가 양성되기를 바란다. 이로써 SC6의 의장직은 중앙대 김준년 교수가 차기 총회에서 정식으로 승인할 때까지 acting chair를 맡고 간사직 사무국은 표준협회 이주란 선임연구원이 맡게 되었다.

ㅇ 신규 Technical Direction 정의
: "Application Technologies" 라는 새로운 기술분야를 정의하고 이 분야에 SC36 (Learning Technology)를 두기로 하였다.

ㅇ SC7 위원회명 변경 승인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공학(Software and System Engineering)"으로 변경 승인하였다.

ㅇ 표준의 유용성(Standards Availability)을 위한 작업계획(Business Plan) : JTC1은 다음 사항들을 의결하였다.

- JTC1은 모든 JTC1 분과위원회들이 표준 유용성을 위한 작업계획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JTC1은 사업의 규모, 시장경쟁력, 구현증진 및 사용자 요구를 특히 고려하도록 하였다.
- JTC1은 프로젝트팀이 함께 그룹화될 수 있는 표준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 기회를 분과위원회에 주도록 한다. 더 나아가 국가 표준화기구, ISO 및 IEC는 표준 패키지의 가격, 표준의 패키지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JTC1은 각 국가 표준화기구들이 표준의 수량 및 관련 SC 번호, 가격목록, 판매된 양 및 추정수입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하도록 권고한다.
- JTC1은 프로젝트팀이 모든 ISO, IEC 회원기구에게 이 의제의 시행에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권고한다.
- 프로젝트팀은 국가회원국들이 그들의 채택내용을 배포하도록 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권고한다.
- JTC1은 2001년 말 시행을 목표로 문서

JTC1 N6333에서 제시된 제안을 승인하며, 2002년 4월 ISO 이사회에 분석결과를 제출하기 위해 2002초까지 관련자료를 표로 작성하고 요약한다.

○ 의장 승인

구분	이름	임기
SC36	Mr. Frank Farance	2003 총회까지
SC31	Mr. Allen Haberman	〃
SC22	Mr. Jhon Hill	〃
SC 2	Prof. Kohji Shibano	〃
SC28	Mr. Raul Colcher	〃
CA&I 라포쳐	Mr. Dave Thewlis	2001 총회까지
JTC1/ITU-T 연락책임자	Ms. Josee Auber	〃
IIT 라포쳐 및 ITSIG 연락책임자	Mr. Frank Farance	〃
IEC/TC100 연락책임자	Dr. Walter van Pattay	〃
마케팅 라포쳐	Mr. Henry Ryan	〃
용어 라포쳐	Mr. Martin Ford	〃
OSI 관리 라포쳐	Mr. Peter Furniss	〃

○ JTC1은 ISO 양식과 ITSIG 지침에 따라 내부문서 양식을 "Word97"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 JTC1 사업계획 승인 : JTC1 N6347 문서를 승인하였다.

○ 차기총회 일정

- 2001. 10. 29. ~ 11. 2 : 미국 하와이
- 2002. 11월초 : 스위스

3. 회의참석 후 소감

○ 이번 SC6 의장국 국내 수임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더 표준화 활동범위를 넓혀 국가위상을 높이고 국내 산업계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정보보호 분야와 IC 카드, 멀티미디어 분야, 데이터 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WG 레벨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제시장 및 국내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도입 및 입장반영을 서둘러야 할 때인 것 같다.

○ 정보기술과 통신기술, 방송기술 등의 융합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의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국내의 대응체계도 관련 부처간에 서로 협력하고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여 표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전반적으로 중복투자를 없애야 하겠다.

○ 회의기간 중에는 거의 해질녘같은 낮이 4시간 가량이고 나머지는 칠흑 같은 밤이었고, 11월 하순부터 다음해 1월 중순까지 두달간은 전혀 해가 뜨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화려하지도 않고 어두운 차림의 검소한 모습이었고, 놀라운 것은 중/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호텔 청소원들까지도 영어를 아주 잘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국어 만큼 독어, 불어도 동시에 잘 하는 사람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거리는 깨끗하고 공공건물 화장실들도 너무나 깨끗한 것에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고 순박하게 보였다. 우리나라도 2002년 월드컵 경기와 국내유치가 확실시 된 ISO/IEC JTC1 분

과위원회(SC27:2001년, SC32, 31, 24, 7, 6: 2002년) 총회 및 WG 회의개최를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다.

<붙임 1>

ISO/IEC JTC1 위원회 조직현황 (2000. 11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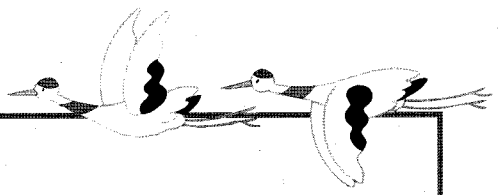
라포처 그룹(Rapporteur Groups)
Conformity Assessment and Interoperability Rapporteur Group **(CAI-RG)**
Implementing Information Technology Rapporteur Group **(IIT-RG)**
Marketing Rapporteur Group **(RG-M)**

표준화 기술범위(Technical Directions)	산하 분과위원회(Sub Committees)
Cultural and Linguistic Adaptability & User Interfaces	SC 22/WG 20 - Internationalization SC 35 - User Interfaces SC 02 - Coded Character Sets
Data Capture & Identification Systems	SC 31 -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 SC 17 - Identification Cards and Related Devices
DataManagement Services	SC 32 - Data Management and Interchange
Document Description Languages	SC 34 - Document Description and Processing Languages
IT Terminology	
Information Interchange Media	SC 11 - Flexible Magnetic Media for Digital Data Interchange SC 23 - Optical Disk Cartridges for Information Interchange
Multimedia & Representation	SC 24 - Computer Graphics and Image Processing SC 29 - Coding of Audio, Picture, and Multimedia and Hypermedia Information
Networking & Interconnects	SC 25 - Interconne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C 06 -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Office Equipment	SC 28 - Office Equipment
Programming Languages & S/W Interfaces	SC 22 - Programming Languages, their Environments and Systems Software Interfaces
Security	SC 27 - IT Security Techniques
S/W Engineering	SC 07 - Software Engineering
Application Technologies	SC 36 - Learning Technology

<붙임 2>

국제규격 제정절차

프로젝트 단계	관련문서	
	명칭	약어
0 예비단계	예비작업 초안	PWI(Preliminary Work Item)
1 제안단계	신규작업 초안	NP(New work item Proposal)
2 준비단계	작업초안	WD(Working Draft)
3 위원회단계	위원회 초안	CD(Committee Draft)
4 질의단계	질의안(국제규격안)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s)
5 승인단계	최종 국제규격안	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s)
6 발간단계	국제규격	IS(International Standards)



일본 "냉장고에도 인터넷주소를"

IT(정보기술)의 미 · 일 역전극을 노리는 일본이 인터넷 주소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릴수 있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민 · 관 합동으로 착수한다. 인터넷 프로토콜(IP)의 제6버전이란 뜻에서 'IPv6'라는 프로젝트 이름이 붙었다. 냉장고 · 시계에서 자동차까지 모든 일상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만물 네트워크 시대'의 세계표준을 선점하려는 구상이다. 일본측 프로젝트는 인터넷 주소가 조만간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12자리 방식인 현재의 기술(IP 제4버전)로는 주소를 43억개(2의 32승) 밖에 만들수 없다. 60억 인류에게 이메일 주소를 하나씩 나눠주기에도 부족하다. 반면 새 기술은 32자리 방식을 채용, 어드레스 숫자를 3조의 10조배의 10조배(2의 128승)까지 확장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인류 1인당 2억6800만개(2의 28승) 꼴로 나눠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4버전이 '양동이 1개분의 모래'라면, 차세대 기술은 '해변가의 모래'로 비유된다. 새 기술은 '포스트 PC(퍼스널컴퓨터)' 시대의 정보가전 혁명을 앞당겨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일본은 일상생활의 모든 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보가전이 IT혁명의 다음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세대 인터넷 기술엔 정보가전 혁명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일본의 노림수가 담겨 있다. 개발에는 소니 · 후지쓰 · 마쓰시타 · NEC 등의 민간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일본 우정성은 수십억 엔의 비용을 보조하고, 세금 경감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후발주자 일본의 'IT 추격전'이 만만치않은 기세로 전개되고 있다.